

동화작가 전이수 특별전 '안녕? 마음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기획전시 27일~9월 3일 개최
SBS 영재발굴단 '그림 영재' 로 소개... 8세에 등단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기획전시로 마련한 동화작가 전이수 특별전 '안녕? 마음아'가 6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전당 전시장 1F(갤러리 S.O)에서 열린다.
이에 따르면 전이수 작가는 아홉 살 때인 2017년 '그림 영재'로 SBS 영재발굴단에 소개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한 영재작가로, 방송 출연 이전인 2016년 여덟 살 어린 나이에 이미 동화책 '꼬마악어 타코'를 출간하며 동화작가로 문단에 입문했다. 이후에도 매년 꾸준히 동화책과 에세이를 새롭게 선보이며 왕성한 작품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전당은 이번 특별전에서 선보이는 글과 그림 70여 점의 작품들을 4개의 섹션으로 나눠 전시할 예정이다.
첫 번째 섹션 '괜찮아'는 무심코 지나치는

순간순간에도 많은 일들을 겪으며 살아가는 세상에서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바라봐 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작품으로 구현했다.
두 번째 섹션 '최고의 소원'은 내가 바라는 세상, 우리가 찾는 행복은 어쩌면 가까운 곳에 있을지 모른다는 작가의 시각을 엿볼 수 있고, 세 번째 섹션 '소중한 사람'은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 용기 내어 사랑과 감사, 용서의 마음을 전하는 메시지를 담았다.
마지막 네 번째 섹션 '사랑해 엄마'는 엄마를 향한 따뜻한 애정을 오롯이 그림에 담아 또래들이 느끼는 엄마에 대한 애틋한 감정을 묘사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70-7844)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동화작가 전이수 특별전 '안녕? 마음아' 포스터



대북 연주가 이순하, 일본서 북 연주 교류

전북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교류지원사업 선정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에서 시행하는 2023년 문화예술교류지원사업에 선정된 대북 연주가 이순하가 오는 23~27일까지 일본 나가노현 오카야시에서 전통 예술분야 교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북지역을 기반으로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순하는 현대적 일본 타이코(太鼓)의 고향이라 할 수 있는 오카야시의 오수와타이코(일본 공연단체)와 2019년부터 교류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일본 연주자들과 교류회 및 워크숍, 오수와타이코 견학, 오

카야 지역신문 인터뷰 등 여러 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북 연주자 이순하는 "2019년부터 교류를 시작해 온 오수와타이코와 이번 사업을 통해 다시 교류할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오카야시는 일본의 현대적 타이코 시조인 오구치 다이치 선생의 고향으로 그가 전 세계에 타이코를 알린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을 통해 일본의 북 연주를 연구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미디어아트 전시 · 드로잉 체험 정읍서 열린다

정읍시립미술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공동협력전시

정읍시립미술관이 시민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F)의 미디어아트 작품을 전시한다.
정읍시립미술관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미디어아트 공동 협력전시 공모사업에 선정돼 오는 22일부터 8월 13일까지 미디어아트 전시 '그 너머에서 만날까?'를 선보인다.
미디어아트 작품과 체험형 미디어 드로잉으로 조성된 이번 전시는 관람객이 미디어를 보고 체험하며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1전시실에 전시되는 미디어아트 작품 '그 너머의 공간으로 초대' (프롬-이수진 작가)는 SNS의 발달로 작품의 의미를 음미하기보다는 인증 사진이라는 2차원의 네모난 공간 속에 그 의미를 가둬버리는데, 그 너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네모난 공간 속에서 다른 생각들이 합쳐져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고 확장시키며 공간 간의 끝이 보이지 않는 초월의 세계를 다루고 있다.
3전시실에 전시되는 미디어 드로잉 작품 '애니멀 킹덤(Animal Kingdom)'은 관람객들이 채색한 다양한 동물들을 스캔해 미디어 작품 속으로 등장시켜 그 동물들의 실제 울음소리와 움직이는 동작까지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또 미술관 1, 2층 라운지에는 미술관에서 천천히 머물다 갈 수 있도록 3곳 포토존을 마련했다. 미술관은 인증샷을 SNS에 홍보하거나 3곳의 포토존에서 인증샷을 찍을 경우 소정의 선물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은=김대환 기자



또한, 7월부터는 정읍시립미술관 상설체험 프로그램인 '미술관 바람의 정원'과 가족 프로그램인 '미술관 딱딱 아지트 - 방울방울, 춤추는 우산'도 진행할 예정이다.
관람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오후 5시 30분 입장 마감)까지이며 월요일은 휴관한다. 전시 및 체험관련 궁금한 사항은 정읍시립미술관(063-530-5178)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은=김대환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국악콘서트 '다담' 이야기 손님 최옥수 사진작가 출연

국립민속국악원은 오는 28일 오후 2시, 국립민속국악원 예음헌에서 차와 이야기가 있는 국악콘서트 '다담' 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이야기 손님은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로 알려진 최옥수(사진) 사진가가 출연해 '사진으로 만나는 남도의 풍경'을 주제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무대에서는 전남 광주 지역에서 최초의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활동하게 된 이야기를 시작으로 1970년대 남도의 사라져가는 풍경과 모습을 담은 사진, 다큐멘터리 기록사진 전시회 등 그의 삶과 사진 철학에 대해 다양한 얘기를 나눈다. 더불어 진도 당산제, 만신 감금화 등 전통문화의 소중한 가치가 담겨 있는 흑백사진과 영상을 함께 감상한다. 최옥수 사진가는 현재 대동문화재단 사진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우리음악 즐기기에서는 국립민속국악원 국악연주단이 출연, 한갑득류 거문고산조, 최옥삼류 가야금산조 등 우리 음악의 아름다움을 선보이며, 관람은 사전 예약제로 전화(063-620-2329)나 '국립민속국악원' 카카오톡 채널로 예약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대 리드믹휴먼케어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전북대 산하협력단 리드믹휴먼케어아카데미(센터장 임희정)는 2023 예술융합인재 교육 프로그램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 과정은 소리와 움직임을 기반으로 한 리드믹, 감각움직임, 표현예술, 자연치유, 진로인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북도교육청 지원으로 심신조화를 통한 공감능력 향상과 진로역량 강화 기회가 무료로 제공된다.
모집대상은 도내 중, 고등학교 학생이며 사회통합전형 50% 우선으로 총 50명을 선발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20~27일 리드믹휴먼케어아카데미 홈페이지(www.rhythmic.kr)에서 응시원서 양식 작성 후 이메일(rhythmic120@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선발된 학생들은 7~12월까지 전북대학교 캠퍼스에서 주말을 이용하여 교육받으며 심리·체형테스트, 국제어플리케이션, 전시, 공연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독일 드레스덴 헬레라우 리드믹 협회의 협력으로 독일, 오스트리아, 중국 대학의 교수진이 참여하고 교육과정을 총괄하는 전북대의 임희정 교수와 한옥건축공학과 남해경 교수, 바이오메디컬공학부 권대규 교수, 심리학과 한현석

2023 전북 예술융합 인재 교육

리드믹 휴먼케어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교육 프로그램
소리와 움직임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건강·체육·기술융합

교육 기간 및 장소
2023년 7월 12일 (토) 10~14시
전북대학교 전주·고당 캠퍼스

모집 대상 및 인원
도내 중·고등학교 학생 50명

문의
070-8080-2356
@rhythmic
리드믹휴먼케어

MOVE YOUR WORLD

교수 및 분야 전문 교수진들이 학생들의 멘토 역할을 한다.
새로운 글로벌 문화인재 양성 기회와 일상 속 문화예술을 건강하게 누릴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